

조각투자 청약한도 3천만원은 법이 아니라 예시입니다

모범규준의 발행별 한도와 아직 나오지 않은 하위법규의 유통 한도를 구분합니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9월 4일 발표와 2월 4일 시행 예정 법률을 대조해 발행시장·유통시장·사업자 요건의 숫자를 나눴습니다.

발행	2026.09.08	연번	2026_95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08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같은 '투자한도'라는 말 아래 법적 성격이 다른 숫자가 섞여 있다고 판단합니다. 발행시장의 3천만원·5%는 모범규준 예시이고 유통시장의 연간 1억원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하위법규 계획입니다. 청약 화면에는 적용 근거와 계산식, 전문투자자 예외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조각투자 청약한도 예시는 1인당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입니다. 이는 업계 모범규준의 표준 예시이고,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연간 순매수 1억원 한도는 9월 말 마련할 하위법규에 둘 예정입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청약한도 모범규준 개정 방향과 하위법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청약한도 예시	3천만원과 발행금액 5% 중 작은 금액	업계 모범규준
전문투자자	한도 미적용 예시	모범규준
유통 순매수	연간 1억원	하위법규 예정
계좌관리 자기자본	40억원	하위법규 예정
하위법규 일정	2026년 9월 말	마련 예정
제도 시행	2027년 2월 4일	개정 법률

표준 예시는 일반투자자 한 사람의 한 발행건 청약금액을 3천만원과 전체 발행금액의 5% 가운데 작은 값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자산의 특성·규모에 따라 사업자가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모범규준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 플랫폼에서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으로 두는 방안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40억원 요건은 하위법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9월 8일 현재 최종 하위법규가 나온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발행시장 청약한도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따르는 모범기준에 있고, 유통시장 순매수 한도와 사업자 요건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규로 정할 예정이다. 숫자가 같아 보여도 위반 때의 효과와 변경 절차가 다르다.

3천만원은 고정 상한이 아니다. 발행금액이 4억원이면 5%인 2천만원이 더 작아 한도가 되고, 발행금액이 10억원이면 5%가 5천만원이므로 3천만원이 한도가 된다.

전문투자자에게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예시도 모범기준에 포함된다. 실제 청약에서는 사업자의 투자자 분류와 발행 공시의 한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대상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 단계에서 청약하거나 장외 플랫폼에서 매매하는 일반투자자다. 발행별 한도와 연간 순매수 한도는 별도로 계산될 수 있다.

발행금액별 청약자 수, 한도에 걸려 배정받지 못한 금액과 전문투자자 집중도는 발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발행금액 4억원	2천만원	min(3천만원, 4억원×5%)
발행금액 10억원	3천만원	min(3천만원, 10억원×5%)
유통시장 계획	연간 순매수 1억원	최종 하위법규 확인 필요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3천만원은 법정 고 정값이 아닙니다	자산 특성과 발행규모에 맞춰 정하도록 한 모범기준의 표준 예시입니다.
02 · 1억원 한도는 아직 계획입니다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일반투자자 연간 순매수 한도는 9월 말 하위법규에 담을 예정입니다.
03 · 발행과 유통 한도의 합산 방식이 남아 있습니 다	여러 플랫폼과 발행건을 거친 거래를 어떤 기준으로 집계할지 최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 전문투자자 예외의 집중도는 알 수 없습니다	예외 적용 금액과 발행별 배정 결과의 공시 기준이 발표자료에 없습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청약 화면에서 한도 금액뿐 아니라 min 계산식과 발행금액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분류를 확인합니다. 2027년 유통 플랫폼이 열리면 연간 순매수 누적액의 집계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상회사	- 청약한도 옆에 모범규준·자체기준·법령 가운데 적용 근거를 표시합니다. - 여러 발행건과 플랫폼을 합산하는 기준을 거래 전에 공개합니다.
당국	- 하위법규 제정 때 발행·유통 한도의 관계와 집계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 일반·전문투자자별 배정액과 한도 적용 결과를 정기 공시하게 합니다.

칼럼길

9월 말 하위법규가 플랫폼 합산 기준까지 정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연간 순매수 1억원 계획은 공개됐지만 여러 장외 플랫폼의 거래를 누가 합산할지는 최종 문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A 통합 합산 기준 마련 투자자는 플랫폼을 옮겨도 한도를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플랫폼별 관리 여러 플랫폼을 이용할 때 총 노출액과 한도 준수 여부를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	---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금융위원회가 9월 말 예고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와 2027년 2월 시행 세칙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2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리서치 조각투자로 산 것은 물건이 아니라 권리다 ↗

금융상품 조각투자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3건

01	1차 · 3천만원·발행금액 5% 예시, 전문투자자 예외, 1억원·40억원 하위법규 계획과 일정 금융위원회, 「조각투자·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2026.9.4 (확인 2026.9.8) · 확인 2026-09-08 원문 열기 ↗
02	1차 · 토큰증권 관련 개정 법률의 2027년 2월 4일 시행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1.29 (확인 2026.9.8) · 확인 2026-09-08 원문 열기 ↗

03

파생 · 발행금액 4억원과 10억원의 표준 청약한도 예시
min(3천만원, 발행금액×5%)를 각각 적용 · 확인 2026-09-08

추적 예정	9월 말 하위법규의 연간 순매수 한도, 플랫폼 간 합산 방식과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원고의 세 한도를 법률·하위법규 예정·모범규준 예시로 나누고, 1억원과 40억원을 확정 규정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순서에 따라 제95호를 부여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정책자료와 법률 시행계획을 분석한 것이며 금융위원회·사업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개별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